

退溪의 「敬」思想에 대한 研究

金 仁 濟

目 次

I 序 論	II 敬의 概念과 方法
II 退溪의 人品과 學問	1. 敬의 一般의 概念
1. 人 品	2. 居敬의 方法
2. 學 風	3. 存養省察의 道
	IV 結 論

I 序 論

우리는 祖國의 近代化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그러나 近代化(modernization)를 그저 西歐化(westernization)로만 誤認하므로 말미암아 浮華輕薄의 洋風에 흐르기도 하여 傳來의 美風良俗마저 아주 흐리게 되었다. 그러나 올바른 近代는 西歐文化와 傳統文化의 價値論的 判斷을 두텁이 하여 취사선택의 辯證法의 발전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價値論的 判斷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韓民族의 主体性과 韓國이라는 具體的인 狀況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왜 그런가. 19世紀 우리는 타율적으로 주어진 近代에의 계기를 맞은 일이 있었다. 즉 1876년 江華條約에 의한 開港서부터 우리는 무거운 고민을 경험하였다. 이때 西歐를 증개한 日本은 우리와 같은 同一文明圈 안에 있는 이웃 제3국이였다. 따라서 그들이 우리에게 소개한 西歐의 文明은 本來的인 西歐文明 그 自体가 아니요, 그들의 國家的 目的에 의하여 다시 修正한 의곡된 형식의 그것이었다. 여기서 한국의 近代史는 西歐的 近代化와 제3국의 침략이라는 Janus의 兩面性을 띠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맞았던 우리의 近代에의 계기는 「傳統의 파괴→近代의 창조」라는 서양의 근대화 의 등식으로는 직결될 수 없었다. 즉 近代 韓國의 발전은 西歐化로 향하는 변화 외에 自己를 지켜야 할 보존에서 모색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런 점에서 韓國 近代史에서는 韓民族의 自己라는 主体性의 문제와 그 主体性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社會 保存原理가 특히 重要的인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이러한 原理는 民族 解放後에도 여전히 적용되어지고 있는 듯하다. 日本植民主義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가 하면 北傀의 侵略勢力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 엄숙한 現實은 우리를 둘러싼 對內外的 矛盾의 克服을 一方으로는 産業化를 통한 西歐化에의 接近과 다른 한편으로는 民族文化의 繼承에 의한 自己主体性의 유지에서 찾아야만 할 것을 이 時代는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民族의 主体性을 어디서 찾아내야 할 것인가? 물론 5천년의 民族史에서 民族의 活力을 오늘에 되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작업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봐서 여간 방대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에 本稿에서는 부득히 우리 生活倫理를 크게 지배하고 있는 李朝 儒學에 눈을 돌려서 그 중에서도 性理學의 儒宗으로 손꼽히는 退溪의 倫理的 價值觀을 考察키로 한 것이다. 특히 退溪의 學風과 倫理的 價值를 택한 까닭은 李滉(1501—1570)은 한국에 있어서 代表的인 朱子學者요, 가장 深奧한 思索을 전개한 위대한 儒學者여서 그 영향은 어느 學者 보다는도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연한 理論의 탐구보다는 倫理的 實踐을 주로한 데서 오늘의 倫理觀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기 때문이다.

西歐의 現代哲學에서는 實存主義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自己恢復내지 自己發見의 길을 모색하였다. K. Jaspers는 現存在로서의 意味 聯關的 現實(eine Sinnbezogene Wirklichkeit)에서 死·苦·責·爭이라는 根本的인 限界狀況(Grenzsituation)을 벗어나려고 하였고¹⁾ M. Heidegger는 특히 時間性的 沒我的·水平的統一(die ekstatisch—horizontale Einheit der Zeitlichkeit)을 期하여 歷史性(Geschichtlichkeit)를 존중하여 超越하려고 그들 나름대로의 實存을 탐구하였다.²⁾

그러면 우리도 우리 나름의 倫理的 價值, 즉 民族史的 主体意識과 民族的인 義務위에서 찾을 價值觀을 定立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價值觀은 固定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아질 때 오늘날 近代化 作業의 즐기찬 推進에 호응하여 價值規準의 創造가 없지 못할 일이다.

創造는 墨守도 아니려니와 그렇다고 한갓 模倣일 수도 없다. 거기에 새로운 길을 틀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先人들이 心血을 기울려 애 쓴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退溪思想을 考察하고 그의 思想 안에 담겨진 바탕을 窺察코자 함도 바로 이 創造의 기틀을 마련코자 함에 있는 것이다.

1) 世界는 調和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만족할 수 없는 우리는 實存으로 비약한다. 이 實存은 어떤 對象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客觀化할 수 없는 우리 自身의 存在이다. 이러한 實存을 밝혀주는 독특한 方法을 解明(Erhellung)이라고 한다. 實存解明은 오직 사람으로 하여금 自我存在에 눈뜨게 하고 自己 自身이 되게 한다. 實存이 가장 잘 해명해 주는 것은 限界狀況인 바, 이러한 狀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속으로 뛰어 들어감으로서 오히려 우리 自身이 깊히 해명된다. 이 한계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狀況 속에 必然的으로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결실히 깨닫게 된다고 한다.

2) 그에 있어서의 實存은 자기에서 탈출하여 存在의 빛속에 나서는 일이다. 말하자면 存在의 露露 앞에 명확히 설 때의 人間이라고 하는 存在者의 存在의 存在方式을 특히 實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實存의 方式으로 存在하는 存在者는 오직 人間뿐이다.

本稿가 특별히 退溪의 倫理思想을 들추어내어 그것으로써 民族倫理의 바탕을 理解하고, 나아가서는 民族意識의 主体性을 되찾는데 있어 그 研究對象으로 잡은 것은 退溪는 世人이 周知하는 바와 같이 東方理學을 大成한 韓國最高의 儒宗이 되기 때문이다.

退溪는 비록 朱子學을 계승발전시키는 일을 완수한 이지만 理論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誠”을 기본으로 平生 敬을 실천한 東方의 聖師다. 그는 性理學의 正統을 계승하고 그를 더욱 선양하겠다는 굳은 信念과 高邁한 眞理觀을 구현하였으며, 동시에 聖學(倫理學)을 밝혀 王道를 행하겠다는 忠君愛國의 선비였다. 또한 그는 언제나 功利榮譽를 멀리하여 오직 崇義尙節하며 修學求道로서 明哲保身함을 몸소 行하였던 賢人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東方 聖師로서의 賢人の 경지는 오직 그가 타고난 天稟과 學問의 努力과 돈독한 실천으로 도달한 경지겠으나, 그가 노력하여 이룩한 “致知”와 “力行”이 밀착되어 형성된 人格에서 풍기는 모습이라 보아 옳다.

退溪는 因文入道한 學者로 中年 이전에는 文章에 힘을 기울였으나, 中年 이후에 와서는 道學을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 나라 性理學을 확고한 기반위에 定着시키고 또 그 次元을 높히는데 공헌한 이다. 그는 程朱의 學으로서 知行의 準則을 삼아 平生을 朱子學研究에 바쳤다는 사실이 다 아는 일이거니와, 退溪는 원래 卓越한 天稟의 소유자였으므로 오로지 獨學으로서 程朱學을 韓國의 土壤위에 大成한 이다.

朱子學은 周濂溪의 太極說과 程伊川의 理氣二元論을 종합한 性理學이다. 周濂溪는 實體를 “無極而大極”이라 하였고, 動的 측면을 陽, 靜인 측면을 陰이라고 보아, 이 陰陽의 二氣로부터 五行이 낳았고, 그 五行으로부터 萬物이 生成하였다고 본 理論인데, 그는 陰陽과 五行은 氣라고 말하였을 뿐이지 太極이 무엇이라고 밝혀내지는 못하였다.

그후 伊川은 理氣二元을 인정하여 그 陰陽二氣의 交合으로 만물이 生成하였다고 설명하면서 이 二氣交合의 所以가 곧 理이라고 하였다.

朱子는 이 兩說을 종합하여 實體를 “太極”이라고 규정하고 이 太極으로서 理氣를 종합하고자 시도하였다.

이 程朱學, 즉 性理學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高麗 忠烈王 16년에 文成公 安珦이 王을 따라 中國 元의 燕京에 갔을 때 新刊 朱子書를 抄寫하여 開京에 가져와서 太學에서 倡道하였고, 그의 後進인 黃頤正, 權溥, 禹傳, 尹華傑, 李瑱 등이 뒤를 이었다. 그래서 高麗末에서부터 李朝末까지 약 600年間은 異學(老, 佛, 陸王學)을 공공연히 창도하지 못하게 하고 程朱學만을 숭상하게 되었다. 자연 이렇게 되니 太學의 왕성에 따라 程朱學의 연구욕은 왕성해져 갔고 朱子哲學이 우리 나라에 뿌리를 내려 李朝 理學(性理學)으로 등장케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나라의 儒學의 主流는 性理學으로 定着을 보게 된 것이고, 朝鮮朝의 儒學을 가리켜 朱子學이라

고 말해지고 있는 것이다(李朝 性理學研究의 興성의 배경에 대하여는 拙稿 “退溪思想研究” 濟大教養學部 論文集 3輯 參照).

元來 儒學에는 여러가지 方面이 있다. 政治에도 있으며, 經濟에도 있고, 法律에도 哲學에도 있으며, 또 倫理道德에도 있고, 文學 및 禮學에도 있다.³⁾ 尙書나 春秋 및 論語, 孟子는 主로 政治, 經濟, 法律과 倫理道德을 대상으로 하여 論하였는가 하면, 中庸과 周易은 主로 哲學을 말하였다. 그리고 禮記, 樂記(樂記는 不傳)는 禮樂을 말한 것이요, 詩書論孟이나 禮記春秋는 또한 文章의 標本이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孔孟 이후 여러 時代를 통하여 그 中 어느 한 分野의 것을 깊이 연구하여 발달시킴에 따라서 그 時代의 背景과 學者의 獨創으로 각각 特色을 띄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점을 中國 文化史의 立場에서 본다면 漢唐은 그 現實的 方面, 즉 政治, 經濟 및 法律 部分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는 반면, 宋明은 哲學的 方面 즉 性理學 部分을 연구하며 발전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董仲舒 및 司馬光은 政治 經濟분야를, 程子나 朱子등은 哲學과 人倫道德을 발전시켰고, 韓愈나 歐陽修는 文學을 연구하고 발전시키기에 노력한 사람들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李朝 儒學에 있어서도 때로는 現實的 方面을 힘쓰며 發輝시킨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文學方面을 발휘한 때도 있었고, 趙光祖처럼 政治現實에 적용한 이도 있었고, 退溪처럼 오로지 理學의 確立에만 정진한 이도 있었던 터이나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朝鮮朝 儒學의 主流는 哲學的 方面인 程朱子學에 있었던 것이다.³⁾

李氏朝 가운데서도 仁宗·明宗 그리고 宣朝 때가 性理學의 全盛時代가 되는데 이 무렵에 우리 나라 性理學의 泰斗라고 불리우는 徐花潭, 李退溪, 李栗谷등이 차례로 일어나 一世를 떨친 바 있었다. 이렇게 性理學이 興성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그 가운데서 주목되는 것으로는 戊午이후에 士禍가 잇달아 일어나 黨讞이 있을 적마다 士類가 거의 滅門의 참화를 종종 당하는 것을 목격한 선비들은 官吏로 出朝하는 것보다 理學을 연구하여 道를 邱園에 닦는 것이 賢明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⁴⁾

當時 性理學의 學風에는 “存養”에 목표를 두어 힘쓰는 立場과 “窮理”에 힘쓰는 立場등 두가지 目標이 있었는데, 첫째의 “存養”은 “存心養性”을 힘써 善良한 마음을 持存하고 하늘이 준 本性을 기르는 것으로 修養의 目標을 삼았다. 무릇 사람이 處身에 있어 自己 良心을 잠시라도 마음가운데서 떠나지 아니하면, 邪惡한 곳으로 들어갈 리가 만무하고 또 자기의 天賦的 本性을 잘 발휘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결코 惡한 사람이 될 리가 만무하다 믿었던 것이다. 때문에 당시의 理學者들은 마음을 먹는데 있어 오로지 “不自欺”를 위주로 하였고, 행동에 있어 항상 “敬”을 힘썼던 것이요, 그들은 매양 省察에 노력하고 또 實踐에 성실을 기하였다. 환언하면 당시의 性

3) 玄相允, 朝鮮儒學史, 民衆書館, 1章 및 5章 參照

4) 拙稿, 論文集 (濟州大學 教養學部 3輯) 退溪思想研究 參照

理學者들은 종래의 儒學者가 “爲人之學”에 힘썼던 것과는 달리 “爲己之學” 즉 나를 위한 학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의 목표인 “窮理”는 道理를 窮究하는 것이었는데, 오늘의 認識論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知識을 확실하게 규명하는 일이다. 그래서 당시의 理學들은 “窮理”로써 宇宙의 根本原理를 탐구하며, 또 天人關係를 追求하였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서의 當爲(Sollen)의 本務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이다.

仁明兩宗 때의 理學者들의 學風은 한마디로 “聖賢”을 배우는 데에 學問의 목표를 두어 몸소 修養에 힘썼으니, 聖賢之道를 배우고 實踐하기 위하여 存養을 힘쓰고 또 窮理에 정진한 것이다. 그러기에 李朝의 性理學의 최고의 목표는 倫理學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退溪의 경우도 例外가 아니다. 退溪에 의하면 宇宙人生의 原理原則(本体)도 人倫生活을 떠나 彼岸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事實明白한 日常生活에 相應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急遽히 遠大한 곳에서 그것을 찾는다면 도리어 實踐에 있어서 依據할 實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⁵⁾

또 그는 달하기를 「聖을 배울 수 있는가? 배울 수 있다. 聖을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다. —이란 곧 無慾이다」⁶⁾라고 한 것이나 또는 實踐을 力說한 말로 흔히 인용하는 「글은 귀나 입으로 배우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음으로 터득해야 하고, 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文章을 외우고 풀이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小學에서 가르킨 바른 몸가짐과 力行을 바탕으로 쌓아지는 것이라」고 믿었다.

즉 退溪의 學問은 바르게 알고 몸소 實踐하여 자기자신을 修養하는 것이었다. 본래 儒學의 근본정신이 바로 이 修己治人이던 것이다. 이 修己治人하는 修養이 孔子의 가르침이요, 朱子의 教學精神이기도 하다. 退溪에 의하면 先王의 教學大本은 오직 小學·大學에 명시되어 있는 五倫의 道를 窮理致知하여 實踐修己하는 데 있다. 退溪의 小學題辭 가운데서 지적하고 있듯이 「小學의 법은 물부러 쏟고 용대하는 쉬운 일부터 익히고 父母에 孝道하고 웃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行動이나 處身에 悖德이 없게 한 뒤에 詩나 書같은 경서를 읽고 외우게 하며」⁷⁾ 이러한 「小學의 경지를 지나서 道理를 窮究하고 몸을 수양하는 것이 大學의 경지다」⁸⁾고 말하면서 「거기서 命을 밝혀서 赫然하고 內外가 없고, 德性이 높고 功業이 넓어 마침내 天性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⁹⁾ 이는 日常 비근한 人倫生活에서 知行의 下手處를 찾고 있는 退溪學의 한 側面을 엿보이게 한다.

5) 自省錄; 答南時甫, 答鄭子中.

6) 通書; 聖學章, 「聖可學乎, 曰可有學乎, 曰有 簡問焉 曰一爲要 一者無欲也」

7) 小學題辭; 「小學之方 擇掃應對, 入孝出恭, 動罔或悖, 行有餘力 誦詩讀書…」

8) 前掲書; 「窮理修身 斯學之大」

9) 前掲書; 「明命赫然, 罔有內外 德崇業廣 乃復其初」

그러하여 退溪는 知行的 根本이 되는 것이 眞實하고 망령됨이 없는 참(誠)이라고 하였고 참됨 자체는 하늘의 道요, 참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의 道義거니와 스스로 힘써 참되려는 方法이 다름아닌 敬이라고 했다.

致知하는 데도 敬이 主가 되는 것이고, 力行하는 데도 敬이 主가 되는 것으로 믿어 退溪는 철두철미 敬을 밝게 들어내려 하였다. 말하자면 退溪의 學風은 倫理學的인 “存養”에 있었으며, 그의 思想의 大本은 “敬”으로 集約될 수 있다. 그러한 데서 本稿는 이 敬을 중심으로 退溪의 人間觀과 價値觀에 관하여 考察코자하는 것이다.

II 退溪의 人品과 學風

1. 人 品

退溪의 이름은 澗이요 字는 景浩, 禮安縣 溫溪에서 出生했다. 燕山君 7年 辛酉에 낳아 宣祖 3年 庚午에 卒하니 壽가 70이었다. 獨學에 의하여 學問에 熱中하였으나 研究가 精緻하고 實踐 窮行함이 독실하여 한결같이 朱子를 본받아 大業을 성취한 退溪는 平生 學究生活을 통하여 性理學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커다란 공을 세움으로서¹⁰⁾ 당시의 학자나 儒生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한편 官吏로서의 청렴하고 조심스러웠던 그의 生活은 그를 勤謹之人으로 또는 清白吏로 만듦으로써 世人의 稱賞을 받게 하였다.¹¹⁾

退溪의 天稟이 훌륭하고 人格됨이 高潔하였으며 研究心이 깊었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그를 마치 神처럼 稱賞하였던 터였다.

다음과 같은 明宗實錄의 기록은 退溪의 人格을 여실히 표현해 주고 있다 하겠다.

「澗 性明睿溫謙 端詳和粹 潛心道學 體驗研究 多所自得 元養切深 無復圭角 辭受取取 心接諸義 一毫不拘 未嘗言過人 亦不經許人也. 其縷析精微 闡明義理之功 東方先儒之所未有也. 學者仰之 如泰山北斗……」(明宗實錄 21年 2月 15日條)

그리고 退溪의 門人 趙穆¹²⁾이 撰한 言行總錄에는

「先生은 天資가 顯悟하고 神彩가 精明하였다. 性品은 어려서는 端懇하여 장난을 좋아하지

10) 宣祖實錄, 卷7, 6年 11月 壬寅의 府啓에

「贈領議政李澗 篤信好學 理明義精而爲德行 發而爲事業 其扶植斯文維持吾道之功 實東方所未有也」

11) 上揭書, 卷196, 39年 2月 李澗의 領經筵事 沈啓壽의 陳啓에

「李澗……承召而來 館學諸生 雖不得相與講論 而竦然有所矜式 仰之如山斗 信之如神明 故士習丕變 人皆激昂」

아니하였고, 成人이 되어서는 學問을 좋아하여 道義로서 수양한 까닭에 총명·정직하고 孝悌忠信하였으며 모나는 행동을 함이 없었다. 氣質은 溫和하면서도 강의하고 말씨는 완곡하면서도 直線的이었다. 學識은 해박하면서도 요령이 있었고, 행동은 온건하면서도 篤實하였다. 淸淨하되 과격하지 않았고 參與하되 굳이 바로 잡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세상에 처해 살되 世俗에 호르지 아니했다」

라고 退溪의 人品을 評하고 있는데, 위 두 記錄에 나타나 있는 退溪의 性品을 요약하면 溫粹, 溫謙, 淸淨, 性靜한 것이었다.

이처럼 賢人과 같은 高潔한 人品을 가졌었고 깊은 學理的 理論에 통달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國王을 비롯하여 臣僚들로부터 사랑과 欽慕를 받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退溪는 國王의 부름이나 臣僚들의 추대에도 불구하고 번번히 官職에서 退職하여 歸鄕할 것을 희망하여 마지않았고 辭退하여 歸鄕中에 王命으로 赴朝를 권하여도 上疏 陳啓등을 자주 올려 官職을 사양해 마지않았던 터라 그의 赴朝生活은 散漫한 것이 되고 말 정도였다. 그가 이처럼 官職을 떠나 歸鄕코자 노력한 것은 中宗에의 己卯士禍와 특히 그의 형이 禍를 입은 乙巳士禍로 말미암은 심리적인 충격과 士禍 뒤의 士習의 퇴폐 및 道義秩序의 混濁에 말미암은 것이 아니던가 싶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보다도 더 적극적인 요인은 차라리 그의 본래의 性品에서 발견된다. 즉 다소 消極的이요, 慎重性 있는 그의 天稟은 性理學研究와 誠을 통한 人格의 修養에는 매우 큰 도움을 주었던 것이지만, 그러한 消極的 氣質은 現實社會와 政策面에 적극적으로 參與하여 社會改革에 貢獻하려는 강인한 취진력을 成長시키지 못한 요인이 된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래서 그는 學問研究에는 우리나라 性理學을 확고한 기반 위에 올려놔 後世에까지 추앙을 받았지만, 그가 이룩한 理論을 政治現實에 導入하여 政治的 經論으로 活用하는데까지는 끝고가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退溪는 그의 타고난 性品上 官職生活과 現實參與面에서는 能力있는 官吏는 못되었을망정, 그러나 그가 誠實성과 沈潛性을 지니고 학문에 執着하여 性理學의 발전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고, 또 後代에까지 큰 영향을 끼친 훌륭한 學者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같이 인정하는 터이다.

또한 退溪는 遺集과 朱書節要등 많은 論文과 著書를 남겼고 수많은 弟子들을 길렀는데 退溪 이전에 그처럼 많은 論著를 낸 이가 흔하지 않고, 그토록 많은 門人을 둔 이가 없다. 門弟子 중에서 정승을 역임한 사람으로는 朴淳(思菴·忠州人),¹²⁾ 盧守愼(蘇齋·光州

12) 菴의 字는 士敦, 號는 月川. 壬辰時에는 麟和에 反對하기도 했으며, 著書에는 圖知雜錄이었다.

13) 淳의 字는 和叔, 號는 思庵. 中宗癸未生. 退溪 항상 말하기를 「朴과 對하면 一條淸水를 대하는 듯하여 神魂이 整爽하다」고 하였다.

人),¹⁴⁾ 鄭芝衍(南峯·東萊人), 鄭琢(藥圃·清州人), 金命元(酒隱·慶州人), 柳成龍(西崖·豊山人), 沈壽(一松·靑松人), 李陽元(鷲渚·全州人), 尹斗善(梧陰·海平人), 朴大立(遼高·咸陽人)등 10명에 달하고 諡號를 받은 이가 30名이며 大提學을 거친 분이 10名이 넘는다.

明宗 宣祖 간에 당시 명성높은 이로 退溪의 門下를 거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고, 退溪의 門人 가운데는 書院과 祠宇에 配享된 이가 74명에 달한 것을 보면 그의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가히 짐작이 간다.

2. 學 風

朱子는 學問의 方法으로서 窮理居敬을 중시하여 “敬”의 한 글자를 聖學의 始終이라고 말하였거니와 退溪 역시 聖學十圖는 敬을 주로 삼고 있다고 하여¹⁵⁾ 學問을 하는 목적을 倫理道德에 두었다. 儒家의 바람직한 人間像은 倫理道德에 부끄러움이 없는 聖賢君子가 되기를 理想으로 삼았다. 退溪가 門人 金而精에게 答하기를 「대개 그 教育은 倫理를 밝히는 것을 根本을 삼는다」¹⁷⁾ 라한 기록으로나 혹은 門人 金誠一이 말하기를 「先生은 聖賢을 높히고 사모하여 恭敬하기를 神明이 위에 있는 것 같이 하였다」¹⁸⁾ 라고 한 것을 보면 한마디로 退溪의 學風은 實踐倫理를 강조하여 窮理居敬을 實際로 實踐하는 방향이던 것이다. 그 점은 退溪가 李叔獻¹⁹⁾에 한 말가운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

「窮理居敬을 實際로 施行할 줄 아니까 말할 것이 없겠지만 혹 이에 어긋나면 異端에 迷惑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才操에 넘쳐 현혹될까봐 걱정이다」²⁰⁾ 라고 한 기록에서 같이 退溪의 學問研究의 至上의 方法은 窮理와 居敬에 있었음이 짐작된다. 그리고 이 두 가지 方法이 並行해 나가기를 栗谷에게 말한 적이 있다.

「二者相首尾 而實是兩段工夫 切勿以段爲憂, 惟必以互進爲法……」(退溪全書: 卷14 答李叔獻)

14) 守愼의 字는 侮寡. 中宗乙亥生. 젊어서 魁科에 뽑혀 淸要를 역임하더니 乙巳士禍에 연루되어 珍島에 19年間 謫居. 이 때 夙興夜寐 箴註解를 지었는데 그는 그 結論에서 夙興夜寐箴全篇의 강령이 敬에 있다는 것과 敬의 方法은 專一에 있는데 誠敬과 專一이 그 德이나 공부에 있어서 同一하다는 것을 力說했다.

15) 成龍은 中宗壬寅生. 壬辰의 難局을 당하여 오랫동안 首相의 位에 있으면서 國運을 만회, 興復을 도모했다. 그는 일찍이 道學의 下手處 卽治身養性의 第一歩가 「其其心」 즉 마음에 主宰가 있게 하는 데 있다하여 主宰說을 창도하다. 또 그는 知가 行보다 귀하다고 말하고 나시 나아가 王陽明의 知行合一說을 論하여 知와 行은 別個의 事物이요 결코 合一의 事物이 아닌 것을 말하였다.

16) 進聖學十圖, 大學圖·大學經

17) 退溪全書: 卷29, 答金而精: 「蓋其爲教也 本於明倫」

18) 退溪全書: 言行錄 卷1, 金誠一撰.

19) 叔獻은 李珣(1536~1584)의 字. 號는 栗谷이다.

20) 退溪全書: 卷 14, 答李叔獻, 「知從事於 窮理居敬之實 可謂勇於改過 急於向道 而不迷其方矣 聖遠言渥 異端亂眞 古之聰明才傑之士 始終溺者 固不足論矣」

즉 窮理居敬은 비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기는 하지만 실은 독립된 공부이니 단계가 나누어 짐은 근심하지 말 것이며, 오직 두 가지가 並行하는 方法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窮理라는 客觀的 方法과 居敬이라는 主觀的 方法이 並行되어야 首尾가 갖추어진 하나의 物체가 完成되는 것처럼 學問研究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虛心觀理 勿先執定於己見 積漸純熟 末可責効於時月 弗得弗借 直以爲終身事業 其理至於融會」(退溪全書; 答李叔獻)

텅빈 마음으로 理를 살피고 먼저 자기 의견을 정해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차츰 쌓아가서 성숙하게 되는 것이니 一生을 통해 공부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事物을 窮理하여 이것을 教으로서 力行한다면 習積하여 眞知와 實得으로 聖賢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敎示나 또 이어 「理를 후련하게 해득하고 敬이 專一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모두가 깊이 공부한 뒤에 스스로 터득되는 것이다」 「其理至於融會 敬至於專一 皆深造之餘日得之耳」(退溪全書, 答李叔獻)

「이전에 다른 사람의 말로 그대가 佛敎의 책을 읽고 몹시 심취한 형편이라기에 내가 속으로 애석하게 여긴지가 오래다. 그런데 일전에 그대가 와서 나를 보고 그 사실을 숨기지 않고 잘못을 말할 수 있었고 또 이번에 보내준 두 차례의 편지의 뜻도 그와 같으므로 나는 비로소 그대가 바른 道에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알고 있다.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새로운 것이 달(甘)지 않고 익숙했던 것은 잊기 어려운지라, 五穀의 열매가 채 여물기 전에 ‘가라지와 피가 온통 번지지나 않을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모면하려면 역시 다른 데서 찾을 必要가 없다. 오직 窮理 居敬의 공부에 충분히 노력해야 하며 이 두 가지 공부의 방도는 大學에 나와 있다」²¹⁾ 고 한 가르침 속에서도 그의 學風인 窮理 居敬의 공부가 엿보인다 하겠다.

그러면 “窮理”란 무엇인가?

앞에서도 言及하였듯이 窮理란 大學에서 말하는 「格物致知」요, 中庸의 「道問學」이다. 窮理는 格物致知한다는 뜻이니 事物의 「理」를 알고자 하면 事物과 接하여 그의 理致를 찾아 直接體驗하는 것이다.

退溪는 「理는 事物에 內在한다. 따라서 事物에 接하여 그 理를 찾아야 한다」

(理在事物 故就事物而窮究 其理到極處也)(退溪全書: 卷26, 答鄭子中, 別紙)

21) 上揭書; 答李叔獻(戊午) 「往聞人言, 足下讀釋氏書, 而頗中其毒, 心惜之久矣. 日者之來見我也, 不諱其實, 而能言其非, 今見兩書之旨, 又如此, 吾知足下之可與適道也. 所嗜者, 新嗜臍甘, 孰處難忘, 五穀之實未成, 而稊稗之秋遺及也. 如欲免此 亦不待他求 惟十分勉力於窮理居敬之工, 而二者之方則大學見之矣」

라고 하여 窮理란 바로 「理」에 다다름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聖賢의 가르침이라하여 無分別的으로 富從하고 追從할 것이 아니라 自己 스스로가 事物과 接(格物)하여 그의 理致를 끝까지 찾으려고 分析하고 綜合하는 實踐에서 眞知를 찾아야 한다고 한다. 그리하여 眞知를 찾기 위한 窮理의 手段으로서 事物(對象)과 接하여 認識主体인 「理」와 事物의 「理」의 交涉를 綜合的으로 혹은 分析的으로 高瞻하여 理의 体用을 밝혀 至善의 道德知를 가지려 하였다.

한편 「居敬」이란 道德性을 涵養하는 主觀的 方法을 가리킨다. 즉 合理氣 統性情하는 태도로서 「未發의 靜」을 근본삼아 聖人으로 나아가는 尊德性이요, 大學에서 말하는 「誠意·正心」이다. 退溪는 말하기를

張橫渠(張子)가 말한 바 「마음(心)이 性과 情을 통솔한다 함은 마땅한 말이다」²²⁾고 하여 마음이 性·情을 통솔하니까, 仁·義·禮·智를 性이라 치고 또한 仁義之心이라고도 했으며, 한편 마음이 情을 統率하니까 惻隱·羞惡辭讓·是非之心등이 나오는 것이니, 學者는 이 점을 잘 認識하고 반드시 우선 마음을 바르게 하고 나아가서 性을 存養하고 아울러 情을 수렴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되면 배움의 道를 터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學者知此, 必先正其心, 以養其性而約其情 則學之爲道得矣) (心統性情圖說) 性은 곧 理로 말미암아 主宰되는 것(統性情)이니, 存養省察의 工夫에 의해서 理(天理)와 性(人性)은 一體가 되니 이것이 “仁”이다. 그러므로 “統性情”을 하지 못하고 心氣의 濁駁한 상태를 지닌 이는 氣質의 사람요, 心氣가 貞定한 상태에서 항상 「居敬」하면 “本然之性”을 갖춘 사람이 된다고 보았다.

退溪는 程朱子의 道統을 이 땅에 開花시킨 본인만큼 “性”을 역시 마음에 갖추어져 있는 理라 한다. 즉 「생각컨대 性은 物이 있음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理일 뿐이다」²³⁾고 說破한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진다.

退溪에 의하면 사람의 마음인 氣質의 性에서 理는 元亨利貞이라는 四德 즉 仁義禮智信이라는 五常이고, 氣는 氣質이요, 사람의 마음이 氣質의 性인 한 純善인 五常이 發한 것인 四端에도 氣가 따르기는 하나 氣는 用事하지 못해서 四端은 늘 善이 된다고 하여 五常은 순전한 善한 것이라고 보았다.

22) 退溪全書; 心統性情圖說, 「張子曰, 必統性情斯言當矣」

23) 退溪先生文集; 卷29, 答金而精 「蓋性非有物 只是心中所具之理」

Ⅱ “敬”의 概念과 方法

1. 敬의 一般의 概念

退溪에 있어 “敬”이란 存養省察을 뜻하는 것이거니와 그의 敬은 修學時節로부터 晩年の 學問의 圓熟에 이르기까지 一貫되어 온 價値觀이다.

退溪는 學問이 圓熟한 老境에서 國家의 장래와 民族安危를 左右하는 君主에게 그 자신의 忠誠을 다하여 올린 “聖學十圖”가 바로 이 敬을 主로 삼고 있는 것이다. 第一 太極圖說에서는 朱子の 말을 引用하여 敬의 功效를 말했고, 第三 小學圖小學題辭에서 “敬”의 一字는 聖學의 始終이 된다고까지 말하였다.²⁴⁾ 또 第四 大學圖 大學經에서는 敬工夫는 철하게 해서 從事에 잃지 말아야 하고 했을뿐 아니라 第八圖 心學圖說에서는 敬은 一心의 主宰라고 하였다.²⁵⁾ 이것을 解明하기 위해서는 우선 退溪가 말하는 敬의 概念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退溪는 進聖學十圖 “大學經”에서 先儒들의 敬의 定義를 引用하고 있다. 이것에 따르면 敬이란 程子の 이른바 “主一無適”이요, “整齊嚴肅”이라고 했다.

그런데 程子는 처음에 周康溪로부터 배웠던 바 周子의 主靜을 배우고서 그는 이것을 敬으로 代置했던 것이다. 이러한 程子の 學說은 朱子에 큰 영향을 주었고 朱子의 理論은 退溪의 學問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이니 敬思想에 있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程子는 敬을 「義形而外方義形於外非在外也. 敬義既立其德盛矣. 易傳」라 하여 敬과 義를 內外表裏로 생각한 易經의 말을 註釋을 붙여서 義와 敬은 불가분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朱子는 程子の 주장에 “窮理”를 첨가함과 동시에 用敬과 아울러 “居敬窮理”를 力說하였다. 어떤 이가 朱子에게 敬은 어떻게 用力하는가를 질문했을 때, 朱子는 답하기를, 程子는 敬을 「主一無適」이요, 「整齊嚴肅」이라고 했다고 하며, 程子の 門人 謝上蔡는 敬을 「항상 惺惺의 法」이라고 했고, 尹彥明은 「그 마음을 收斂하여 一物도 容納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程子の 敬의 概念인 「主一無適」이란 一心專念한다는 뜻이요, 「整齊嚴肅」이란 마음을 다스려 가지런히하게 하고 엄숙하게 한다는 뜻이며, 謝氏의 「항상 惺惺의 法」이란 항상 스스로 마음을 살가 깨닫게 하는 方法을 뜻한다. 朱子는 居敬窮理를 말하고 있는데, 이 程謝朱의 說의 共通된 점은 敬의 一貫된 持續性임을 지적할 수 있다.

朱子의 뒤를 이은 退溪는 敬을 마음의 齊莊靜一, 整齊嚴肅, 戒慎恐懼, 主一無適, 항상 惺

24) 進聖學十圖, 小學圖題辭, 大學圖經.

25) 敬者一心之主宰而萬事之本根也. 大學圖.

巍한 狀態임을 말하고 있으며, 이 狀態를 持續하려는 것이 持敬이라고, 그의 「聖學十圖」에서 力說하고 있는데 한편, 「心統性情圖說」에서는 「未發存養, 已發省察」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 표현을 종합한다면 敬이란 見聞하기 전에 戒愼恐懼하기를 더욱 嚴하게 하며, 또 天性(本心)을 상실하지 않도록 그 善한 性품을 存養하는 것이라고 要約된다.

그러므로 敬이란 결국 存養省察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거니와, 存養이라는 것은 天性을 잃지 않고 그 善한 性품을 기를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惺惺하게 自覺하는 상태라고 退溪는 이해하고 있다.

위에서 보아왔드시 退溪는 敬을 지극히 중시하여 道에 들어가는 門이요, 마음의 主宰가 敬이며, 敬이 모든 것의 根本이 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처럼 敬을 강조함은 그의 哲學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서 人間을 하나의 概念으로 파악하려는 것이 아니라, 生動하는 「全人」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점은 그의 理氣說에서도 엿보는 바가 있다. 즉 退溪는 「理」와 「氣」를 겸하고 性과 情을 통괄하는 마음과 이 마음의 理가 散在하는 일체의 事物의 관계란 마치 Hegel의 主觀과 實體의 관계처럼 相互媒介的인 것이라 보고 있다. 그래서 그의 「心性」은 心이란 「兼理氣 統性情」으로 性이란 仁義禮智로 그리고 情이란 四端七情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되는 것이다.²⁶⁾

高峯에 의하면 「性은 理의 總名이고 仁義禮智는 性 가운데 있는 개별적 명칭과 四端 즉 惻隱, 羞惡, 辭遜, 是非는 情의 發하는 이름이며 情은 性에서 나오면서 善한 것이다」²⁷⁾ 그러나 高峯이 말하는 性은 本然之性이 아니라 氣質之性에서 나온다고 한다. 그래서 高峯은 마음의 未發을 性, 已發을 情이라 하고 性에는 善하지 않음이 없으며 情에는 善惡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退溪는 「理의 發」 즉 理發而氣隨之인 四端을 道心이라고 했고 「氣의 發」 즉 氣發而理乘之인 七情을 人心이라고 하였다. 혹 四端을 情이라 하고, 七情을 情이라 하지만 情이란 性의 發이요, 이미 七情을 情이라 하면 이른바 四端은 과연 무엇인가?고 묻는 李宏仲의 질문에 退溪는 「人心은 七情이요 道心은 四端이니, 두개의 道理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²⁸⁾ 대답하고 있는 것은 退溪의 人性論의 要諦가 된다고 하겠거니와 理와 氣가 함께 發해서 氣가 用事해도 理의 發에 過不足이 없어서 節에 맞으면 善이 되고 氣가 전혀 用事하지 않아서 理의 發이 節에 맞으면 純善 즉 道心이 된다고 하여 그는 性理說이란 穿鑿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四端은 理之發, 七情은 氣之發이라고 訂正한 天命圖說이 高峯의 辯論으로 理發氣隨, 氣發理乘之說로 다시 再訂正됨은 儒學史에 유명한 변론이지만 理發에 대한 根本的인 姿勢는 一貫해

26) 退溪文集, 遠聖十圖筭井圖, 心統性情圖, 23-4枚參照

27) 高峯文集; 「性是理之總名 仁義禮智 皆性中一理之名 惻隱羞惡辭遜是非 是情之所發之名 此情之出於性而善者也」

28) 退溪文集; 卷36 書, 答李宏仲.

서 不動한 것으로 보인다.

退溪가 이처럼 敬을 중시하고 言語的인 論理性보다 倫理的인 實踐을 중시하고 있는 까닭을 그의 聖學十圖의 主思想이 오로지 敬으로 一貫하고 있는 점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것이거나와, 動하여 일한 적에나 고요히 靜하여 있을 때에나 言動에 기쁨과 싫은 표정 없이 敬으로 始終一如 敬해야 하고 大學에서 일러주고 있는 戒懼이나 慎獨은 다 같이 敬工夫임을 말해주고 있다. 이점에 대하여 退溪는 「靜의 工夫는 戒懼懼恐이라」²⁹⁾고 하는 등 進聖學十圖에서는 持敬의 方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바 그 方法은 다음과 같다.

2. 居敬의 方法

退溪의 敬은 「窮理居敬」으로 요약되거나와 退溪는 그의 聖學十圖 劄子에서 持敬의 方法을 「持敬하는 方法은 반드시 삼가고 嚴肅하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을 두어 배우고 묻고 생각하고 分別하는 사이에 理를 窮理하여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곳에서 警戒하고 두려워 함이 더욱 嚴肅하고 더욱 恭敬할 것이요,³⁰⁾ 隱微한 곳과 혼자 있는 곳에서 省察함이 더욱 더 精密하여 어느 한 그림을 두고 생각할 적에는 마땅히 이 그림에만 마음을 專一해서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고, 어떤 한 일을 짚得할 적에는 마땅히 이 일에 專一해서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여 아침 저녁으로 변함이 없이 매일 매일 계속한다」

「其爲之(持敬)之法, 必也存此心於齊莊靜一之中, 窮此於理學問思辨之際, 不日者不聞之前, 所以戒懼者愈嚴愈敬, 隱微幽獨之處, 所以省察者愈精愈密, 就一圖於思則當專一於此圖, 而如不知有他圖, 就一事而習當專一於此事, 窮如不知有他事, 朝焉夕焉一有常, 今日明日而相續……………」(聖學十圖, 劄子)

이와같이 敬은 곧 存養省察하는 일이니 敬의 方法은 이 외에도 찾아 볼 수가 있다.

存養省察의 「存養」이란 本心을 상실하지 않고 善性을 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齊莊靜一한 가운데 두어서 아침 저녁으로 戒懼懼恐하는 상태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日常人倫生活에 相即해서 공부하는 것이 持敬하는 方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朝夕으로 변함없이 매일 계속하며, 또 새벽에 정신이 맑을 때에 그것을 되풀이 하여 그 뜻을 理解하고, 혹은 平常時에 있어서 사람을 대할 때에도 몸소 경험하고 복돋우

29) 退溪全書, 言行錄, 問延平靜坐說.

30) 退溪는 言行錄에서 持敬을論하는 가운데 「整齊하고 嚴肅하게 하는 수양보다 더한 것이 없다. 찾으려 하지 말고 안배하고자 하지도 말고 오직 규범이나 格式에 입각하여 남이 보지 않은 은밀한 곳에서도 스스로 근엄하게 경계하고 조금도 放逸함이 없이 수양을 지속하면 惺惺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라」³¹⁾고 권고한다.

또 그는 王에게 進言하기를 「敬을 지킨다는 것은(持敬)은 思·學을 겸하고, 動靜을 一貫하고, 內外를 合一하고 顯微를 한결같이 하는 道입니다. 持敬을 이룩하는 方法은 반드시 마음을 맑고 엄숙하고 조용하고 한결같이 간직하고 또한 學問과 思辨속에서 理致를 窮究해야 합니다. 남이 보거나 듣지 않은 곳에서도 더욱 엄숙하고 더욱 경건하게 계구하는 바 있어야 하며, 또한 隱微하게 깊이 혼자 있는 경우에도 더욱 정밀하게 省察하는 바 있어야 합니다」³²⁾고 권고 하면서 끝아가서 그는 그렇게 하면 「中和로써 位育하는 공덕을 이룩할 것이며 모든 德行이 倫理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며, 또한 天人合一의 오묘한 道理를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³³⁾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敬은 日用第一義로서 動과 靜을 貫通하며, 知와 行의 基本이 되는 자세를 의미한 것이 된다. 天理와 人性의 合一点인 「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단지 知的인 窮理만 가지고도, 또는 實踐을 위주로 하는 居敬만 가지고도 아니되는 것인즉 「居敬窮理」의 敬을 깊고 넓게 철저히 하 한다고 하였던 것이다.

程子の 敬, 朱子の 居敬窮理등도 각각 方法論이었듯이 退溪도 理昧志弱을 克服해야 할 것을 늘 主張했고 寡慾해야 할 것을 역설했다. 養心이 莫善於寡慾이라고 해서 本心을 길러주는 데 가장 중요한 일로 삼아서 한결같이 窒慾을 말한다. 窒慾의 方法을 물었을 때 伊川은 思字로 일러 주고 생각이란 言語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金敬直이 思와 敬은 어떠한 것인가? 고 묻는 말에 退溪는 답하여 「사람들은 생각은 할 줄 알지만 敬에는 用力하지 않으며, 또 생각으로부터 들어가면 거의 得處가 있을 터이니 思字는 學者들이 특히 힘을 기울여야 할 자리라고 하였다」³⁴⁾ 이렇게 보면 學과 思, 思와 敬은 일련의 脈絡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持敬의 說이 許多하게 많지만, 반드시 많이 말할 必要도 없고 다만 整齊, 嚴威, 儼恪, 動容貌, 整思慮, 正衣冠, 尊瞻視등의 말을 熟味하고 實踐을 기울이면 身心이 肅然하고 表裏가 如一하게 된다는 黃升卿의 말을 引用說明³⁵⁾하는 것으로 미루어 退溪의 “敬”공부들 집작하게 한다.

3. 存養省察의 길

위에 말한 바 持敬의 方法은 存養省察함에 있었다. 그리고 存養이란 本性을 잃지 않고 善性

31) 聖學十圖; 割子, 「朝爲夕焉而有常, 今日明日而相續, 或袖擇玩味於夜氣清明時, 或體驗栽培於日用酬酢之際, 其初猶未免或有掣肘矛盾之患, 亦時有極辛苦不快活之病……」

32) 聖學十圖; 割子, 「而中和位育之功可致, 德行不外乎之倫, 而天人合一之妙, 斯得矣」

33) 上揭書, 割子

34) 理學通錄; 金敬直條, 「思與敬何如曰人於敬上未有用力處且思入底幾有箇觀處處思之一字於學者極有力」

35) 理學通錄; 卷5, 黃升卿條.

을 기르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靜을 반드시 保存하는 일 즉 靜一肅然한 마음을 涵養하는 공부였다. 그러면 省察이란 어떻게 하는 일인가?

省察이란 글자 그대로 잘 생각한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思慮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내 마음을 돌이켜보고 스스로 警戒하고 삼가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말하자면 行爲의 結果를 反省하며 動機의 善惡조차도 反省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란 것이다. 退溪가 功利를 버리고 순수한 動機의 省察을 重視하여 心術道德을 강조한 것은 門人 黃仲舉에 答하는 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즉 「義를 바르게 하여 利를 圖謀하지 않고 道를 밝혀서 그 功을 해아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 그것인데 人間社會에 있어서의 義理實踐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한다.

義는 본시 周禮에 보이는 六德 가운데의 그 하나이다. 論語에도 義에 관한 언급이 여러군데 보이며, 孟子에서도 仁義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中庸에 있어서도 義는 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 義의 概念들은 어느 것이나 社會性을 띠고 있다. 즉 孟子는 한편으로는 政治的인 側面을 가지고 義를 말하며 惻隱한 마음으로써 政治를 行하면 자연 仁政을 이룰 수가 있다고 梁惠王에게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四德인 仁義禮智를 말하면서 羞惡之心은 義의 端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⁶⁾ 스스로의 잘못을 부끄러워 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함이 羞惡이라는 것이니 부끄러워하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은 곧 義의 발단이 된다는 것이다. 國家政治에서 大義名分을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君主가 臣下에 惻隱之心으로 臨하며, 臣下도 義로 君主를 섬긴다는 것이 바로 五倫의 君臣有義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朱子는 孟子의 梁惠王章에서 仁은 心之德이요 愛之理, 義는 心之制요 事之宜라고 註釋을 달고 있다. 心之制란 義의 體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程子가 말하는 處物爲義라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朱子는 孟子나 程子등의 見解를 참고로 해서 그 나름대로의 義에 대한 見解를 내세운 것으로 보아진다.

이러한 朱子의 見解에 따른 退溪의 義에 관한 主張은 敬과 더불어 兩立시켰다. 즉 “敬”과 “義”는 그 어느 쪽도 버릴 수는 없다. 만일 義에만 힘쓰고 敬을 소홀리 할 때, 그 義는 義가 못되며, 반면 敬만을 일삼고 日常生活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公·私·義·利의 分別을 모른다면 昏雜을 면할 수 없어 敬이 敬아닐 수 있게 된다고 한다.³⁷⁾ 요컨대 敬은 義를 떠나서는 敬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한 데서 退溪는 敬공부를 열심히 한 것이고 義를 實踐함에 조금도 게을리 한 바가 없었던 것이다.

36) 孟子, 公孫丑上.

37) 理學通議; 卷3, 余正叔條「敬義工夫不可偏廢, 彼專務集義而不知主敬者, 固有虛驕急迫之病而所謂義者或非其義, 然專言主敬而不知就日用間念慮起處, 分別公私義利之所在而決取舍之起焉則恐亦未免於昏憤雜擾而所謂敬者有非其敬」

이러한 姿勢에는 敬을 통해서 誠에 이르자는 정신이 低流에 흐르고 있다. 이점에 관한 高峯도 見解를 같이 하고 있다. 高峯은 「大体로 敬이란 主一無適임을 이룸이요, 誠이란 眞實無妄을 말함이다. 誠이란 하늘의 道며, 敬이란 聖人の 道이다. 곧은 誠을 가지고 恭敬해서 實踐할 수 있으면 聖人の 道 역시 배울 수 있다. 그러면 이른바 敬과 誠에 이르기 위하여는 어떻게 用力할 것인가? 審思, 明辨, 自強不息은 誠을 생각하는 實이며 整齊 嚴肅 戰兢自持는 敬을 주로 하는 實이다. 學者들이 이렇게 用力하면 天地萬物의 갖가지 靈妙한 道를 마음으로 얻을 수 있으며, 聖人の 일을 내가 또한 배울 수 있으니 어찌 彼此의 간격이 있겠는가. 세상의 君子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이다!」고 한 所論은 退溪의 敬과 義의 “窮理存養”에 상당히 접근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結 論

이상에서 보아온 敬에 대한 考察을 종합해 보면, 退溪는 敬을 단순히 理論으로만 窮理하는 법추지 않고 敬을 통하여 誠에 이르기를 직접 實踐함에 힘썼음을 알 수 있다. 敬은 思와 學, 知와 行을 겸하여 이것을 통일하는 원리로서 理解하면서 배우고도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두워지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아니하면 위태로워 진다라는 孔子의 所論을 전승하여 「배운다는 것은 그 일을 習得하여 참되게 實踐하는 것을 말한다」³⁸⁾고 力說하여 學이라는 것은 事理를 배워서 그 실상대로 實踐하는 일이라고까지 말하여 倫理生活에 있어 實踐知의 우선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倫理的 價値觀의 姿勢는 善과 心性을 敬으로 응결시켰고 平生을 敬을 지키고 실천하였으니 敬은 실로 退溪의 指導理念이라 하여 좋은 줄 안다.

退溪의 哲學과 倫理가 “理”와 “敬”으로 요약될 수 있다면 理의 認識과 敬의 實踐은 그의 學問의 骨子라 보아지므로 우리는 위에서 敬의 概念을 밝힘과 동시에 存養省察이라는 方法的 側面을 탐구하여 眞知와 力行의 要諦로 理解하려고 했다.

한편 教育面에 있어서도 退溪는 科學에 及第하여 官吏 進出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知的 偏重教育이 아니라, 知·德·行이 하나로 융화된 全人教育, 즉 人間으로서 完成된 教育觀을 바탕으로 한 倫理的인 目的을 예상하는 教育觀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고 科學制度를 비난한 것은 아니다. 學問을 國政과 無關하다고 보았을리 없고, 教育의 指標를 國家의 要求와 分離시켜 생각했을 리 또한 만무하다. 다만 우리 나라의 英才들이 文藝의 재조에만 힘쓰는 나머지 聖人の 가르침을 직접 연구하고 그것을 체험을 통하여, 實踐力行하는 참가 드문 상태를 경계한 것이리라. 學은 나 自身の 學이지 남에게 자랑코자 하는 것이 아

38) 聖學十圖; 大極說, 「學也者習其事而眞踐履之謂也」

단만큼 道理니, 德行이니 하는 것이 모두 내가 마음으로 體得하여 射行하는 데 眞價가 있으며 단지 外面的인 修飾에 의한 名譽를 탐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경고한 데 불과하다. 그리고 “知行並進”을 주장한 退溪는 知와 行이 基本이 되는 자세로 敬을 내세워 敬의 공부는 知的인 學習만으로는, 혹은 力行爲主의 訓育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居敬窮理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性善說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던 退溪는 工夫하는 學者는 그 당초의 本然의 性善으로 復歸하기를 권하고 있는 바 大學圖에서 「大學」의 「大學之道, 在明明德, 在新民, 在止於至善」을 圖解하여 「明明德을 體로 하고, 新民을 用으로 삼은 다음 「止於至善」을 體用的 표적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明德을 밝히는 것도 백성을 새롭게 하는 新民도 같이 그의 理想으로 믿는 바는 至善에 머무는 데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 至善은 별다른 곳에서 求할 것이 아니라 平常의 理요, 天命所當然의 理였다. 그 理의 輕重, 長短, 大小의 法則으로서 자기 알맞는 節을 가지진 않은 것이라곤 없으니 發하여 모두 節에 맞다는 것이 있음을 말함이다. 退溪에 의하면 惡이 本來부터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理의 過不足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니, 過不足이 없도록 힘쓰는 일이 至善하는 일이고 持敬하는 일이다. 持敬하여야만 知的學習(窮理) 實踐의 行爲(居敬)를 보다 철저히 할 수 있다고 믿었다.

退溪가 主張한 「敬」은 西洋倫理學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며 東洋倫理를 이해하는 자만이 體得할 수 있는 倫理的 德目이다. 그는 朱子の 性理學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면서 居敬을 특히 중시하고 聖學의 始終을 “敬”으로 要約했다.

이러한 退溪의 思想은 李朝 儒學을 지배해, 「自身의 品位를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마음」 곧 「自重하는 마음」을 은연중 이 民族에 심어 놓았다. 목이 말라도 盃泉의 물을 마시지 않겠다는 君子獨愼이라든지 실명 暴徒의 무리에게 해를 당할 때라 하더라도 갖을 바로 잡아 君子로서의 自尊心을 잃지 않았다는 逸話 역시 의연히 品位를 지키고자 한 敬의 實踐에서 나온 自尊心에 연유한 것으로 안다.

이처럼 우리 조상은 自尊心을 가지고 日常生活을 꾸려나갔다. 얼마전까지도 우리는 이 소중한 民族的 矜持를 위해 日帝의 侵略에 항거하여 목숨을 초개와 같이 던진 많은 韓國人들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도 과연 부질없이 남에게 自身을 展示하고 남에게 責任을 돌리며, 出世와 就職, 그리고 국물이 생기는 의자에 앉고자 하는 學問의 자세 대신에 조용하게 自身을 다짐하는 「韓國의 自尊心들」을 과연 얼마나 發見할 수 있을 것인가? 自尊心 없는 民族은 主体的으로 生存할 수 없다는 事實을 인정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잠깐 「이스라엘」의 경우를 돌이켜 보자. 아람民族에 포위되어 孤立無援로 갇혀 있는 그들은 砂漠 속에 기적을 이루었다고 한다. 이 기적의 원동력이 된 것이 바로 그들의 民族的인 自尊心

이란 것을 우리는看過할 수 없다. 周邊의 侵略的 情勢下에 놓여 있기는 韓國도 저물과 비슷하다. 그렇다면 韓民族은 과연 어떻게 어떠한 自尊心을 再發見하고 祖國의 近代化를 위한 自己生存 내지 自己保存이란 命題를 만족시킬 것인가? 우리 民族史가 가르쳐 주는 바에 따르면 우리 歷史의 活力을 되찾았을 때 民族은 융성하였음을 안다. 오늘날 민족의 活力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主体的 自覺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主体性이 곧 民族精氣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主体性으로부터의 遊離된 思想, 技術은 여전히 남의 흥내일 수 밖에 없고 그것은 일파진 形骸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文化일 수는 없다. 民族文化의 位置는 이미 우리의 先人들이 닦아 놓은 土臺위에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土臺위에 진폭이 넓게 새로운 擧取와 더불어 主体性을 빛내는 것, 그것이 바로 韓國思想의 方向이리라. 그 方向으로 우리의 自信있는 걸음걸이를 과감하게 내어디딜 때 人類의 文化도 새로운 축복을 더하게 될 것이요, 物質文明이 가져다 준 갖가지 社會的 모순을 극복하고 人間의 價値와 善의 가치가 頂上을 차지하는 價値體系가 우리의 民族倫理와 더불어 바로 서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한 作業의 첫 段階인 민족으로서의 自尊心의 회복을 爲해 退溪의 敬思想은 새로운 뜻을 갖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 Summary —

A study on the thought of Taegye's "Ching"

Kim In-je

This study is considered on his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 and significa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hought of Taegye's "Ching"(敬),

Taegye(退溪) is a philosopher accomplished Eastern Neo-Confucianism(性理學) in Korea. He is also a scholar succeeded to the tradition of Chu-tzu's philosophy of China.

However, he is not over with succeeding only to Chu-tzu's theory.

On the contrary he developed not only Chu-tzu's theory more intently, but also he practiced it by himself. Therefore, Taegye is called a practical moralist.

The Ching(敬) is originated from Taegye's practical ethics. Thus the Ching(敬) consists of Taegye's fundamental thought.

In order to practice the Ching, he claims it to coordinate knowledge and behavior. In the way of coordinating knowledge and behavior, he put emphasis on doing Jon-Yang Song-Chal(存養省察). In other words, it is to meditate ourselves and to reflect on our behavior. He considers that the wrong behavior gives rise to on account of insufficiency of Go-Kyung(居敬).

I think that the references like the following presentation will be helped to understand the central idea of Go-Kyung. (居敬)

He emphasized that both the humannature and Heaven(天命) were merely two different manifestation of one and the same principle of "Ri"(理). According to his Neo-Confucianism, what Heaven has Conferred is called the Nature(性), an accordance with this nature is called the path of duty(道).

The path may not be left for an instant. If it could be left, it would not be the path. On this account, the Superior man does not wait till he sees things, to be Cautious, nor till he hears things, to be apprehensive. Therefore the superior man(君子) is watchful over himself, when he is alone.

This thought of Ching(敬) cannot be found out the western ethics. The only one that can understand the Neo-Confucianism can be realized by experience the morality of Kyung.

Today we want to be settled a value view of Neo- Confucianism once more in Korea. Thus I believe that the study of Taegye's Ching will be kept significance for seeking for a model of settling of the Neo-Confucianism in Korea.

I convince that this study will be helped forward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ce of Korean people and that will become the beginning of an effort succeeded to the cultural tradition.